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2025.07.31.(목)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당정, 포스코이앤씨 산재 대응 나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의령 사고 현장 긴급점검 후 본사 방문
김주영 단장 · 김영훈 장관 '현장 변화' 한목소리
포스코, 안전특별진단TF 운영 약속
3개월 내 작업 개선 점검 및 위험요인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면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산업안전 예방을 강조한 가운데, 당정이 발맞춰 현장 점검과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그룹사에서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노동자 끼임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며 "왜 이렇게 원시적인 사고들이 반복될까, 혹시라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단장은 “조금만 신경 쓰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가족들의 비통함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런 후진국적 사고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재예방TF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오전 사고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거나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안전줄이 천공기에 감겨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덮개가 있었다면, 회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회사 측이 취하려는 대책은 사고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덧붙이며 회사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지난 7월 28일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그는 “재발을 막도록 노사정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장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깊은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며 “작업현장의 안전문제로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이사는 “그룹 전체차원의 안전특별진단TF 운영을 통해 향후 3개월 내 작업 개선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안전예산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도 없이 최우선 집행하고, 위험이 외주화되지 않도록 포스코가 하도급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스코그룹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진단 솔루션과 안전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산재예방TF는 의령나들목을 직접 찾아 현장 긴급점검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 의심사항과 현장관리 소홀을 발견하고 회사측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본사 방문에는 산재예방TF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 간사, 박홍배·이훈기·정진욱 위원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했으며, 포스포그룹사에서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와 포스코이앤씨 등 8개사 대표이사가 자리했다.